



12차시.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

학습목표

1.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**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**을 설명할 수 있다.
2.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**처벌 관련 원인**을 분석할 수 있다.
3.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**안전가이드**를 설명할 수 있다.

1. 개요 - 어린이보호구역의 개념

1.1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

: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한 구간을 의미한다.

-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이나 기타 노면표시,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주는 차단막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한다.

1.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정의

: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신체가 다치게 되는 경우,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
- 2009년 12월부터 중과실사고에 추과되었으며, 어린이의 기준은 만 12세까지로, 사고에 관한 신뢰의 원칙 적용불가

1.3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유형

- ①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으로 인한 사고
- ② 불법주정차위반행위로 인한 사고
- ③ 제한속도위반행위로 인한 사고
- ④ 이륜차의 인도통행으로 인한 사고
- ⑤ 정지선위반행위로 인한 사고
- ⑥ 어린이통학버스 서행 시 일시정지하지 않아 사고 발생



2. 대표 사고유형

(1) 어린이보호구역 내 20km 서행 중 어린이의 도로 진입으로 사고발생시 처벌은?

-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어린이의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, 별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는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. 어린이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결국 운전자 스스로 주의하여 운전해야 한다.

(2) 학교 앞 골목길 내 교통사고임에도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 이유는?

-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제한속도인 30km/h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가능하다. 사고 당시 스피드건이나 무인속도 측정기, 타코미터(스피드미터), 블랙박스 등에 속도가 찍혀 있다면 속도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 당시 진행속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

3. 사례

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은?

- 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에게 “괜찮니?”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, 아이가 다쳤는지 아닌지는 어린이의 대답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,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.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하며, 뺑소니범죄로 처벌한 바 있다(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3190 판결)

4. Q&A

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해당하는가?

-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지정한 어린이는 걸어 다니는 어린이, 즉 보행자만을 뜻하기에 자녀를 차에 태우고 가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른 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

5. 안전가이드 Tip

- 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행속도가 시속 30km를 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한다.
- ②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·정차를 하지 않는다.
- ③ 어린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자동차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.
- ④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는 더욱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.
- 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앞지르기, 급제동, 급출발을 하지 않는다.
- ⑥ 어린이가 도로를 건널 때에는 횡단보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와 눈을 맞추고 일단 정지한다.
- ⑦ 사각지대에 가려진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.
- ⑧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의 직접 신호지시나 어린이안전도우미의 지시에 따른다.
- ⑨ 어린이 통학차량이 정차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한다.
- ⑩ 어린이의 돌발행동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, 어린이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주의하여 운전해야 한다.
- ⑪ 어린이는 돌발행동이 많으므로,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서행운전해야 한다.